

제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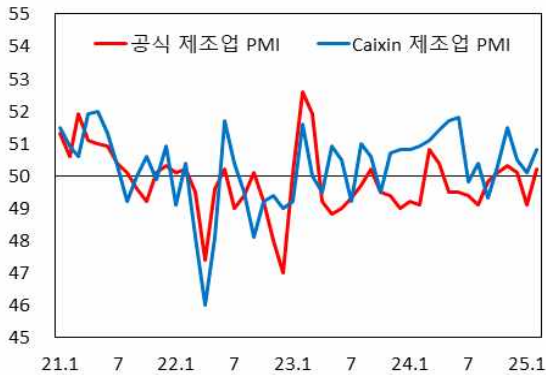
중국 2월 제조업 PMI 상승

1. 2월 PMI의 주요 특징

□ (제조업 PMI) 2월 제조업 PMI는 50.2로 전월(49.1)보다 1.1p 상승하면서 기준치(50)를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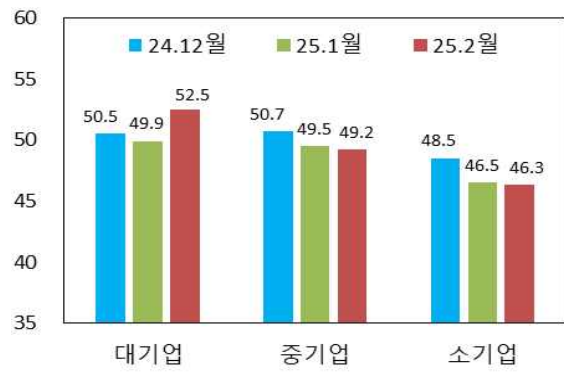
○ 규모별로는 중기업(1월 49.5 → 2월 49.2)과 소기업(46.5 → 46.3)이 하락하였으나, 대기업(49.9 → 52.5)은 큰 폭 상승

제조업 PMI



자료: 국가통계국, WI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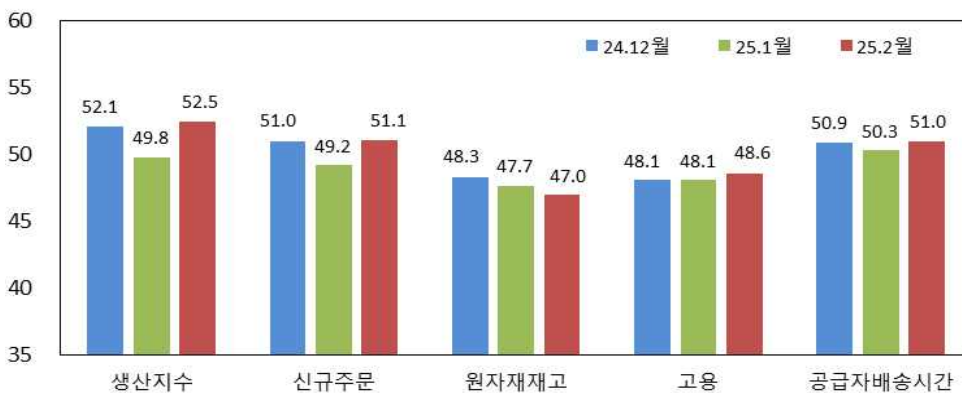
기업규모별 제조업 PMI



자료: 국가통계국, WIND

○ 세부 항목별로 보면 원자재재고(1월 47.7 → 2월 47.0)가 하락한 반면, 생산(49.8 → 52.5), 신규주문(49.2 → 51.1), 고용(48.1 → 48.6), 공급자배송시간(50.3 → 51.0)은 전월에 비해 상승

구성항목별 제조업 P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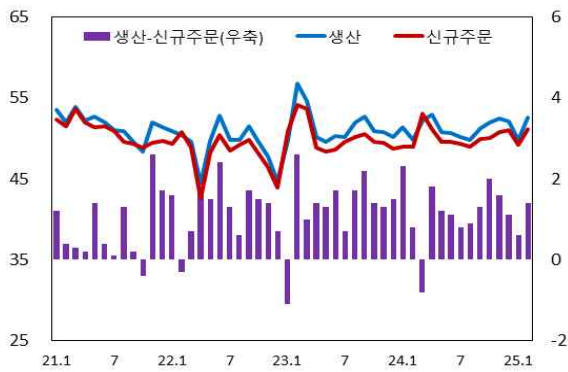
자료: 국가통계국, WIND

— 공급으로 해석가능한 **생산지수**와 수요로 해석가능한 **신규주문지수** 간 **차이**는 **확대\***

\* 생산지수 - 신규주문지수: (24.10월) 2.0 → (11월) 1.6 → (12월) 1.1 → (25.1월) 0.6 → (2월)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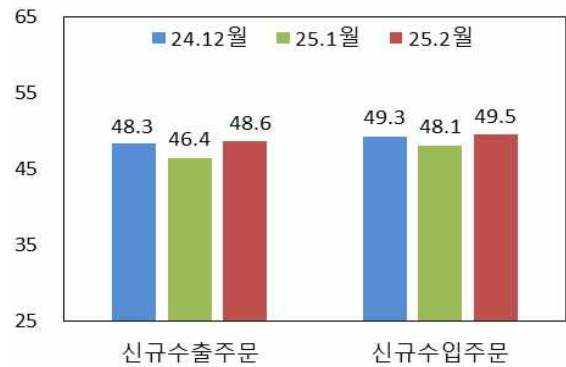
— **신규수출주문\***(1월 46.4 → 2월 48.6)과 **수입**(48.1 → 49.5)은 모두 전월에 비해 **상승**

**생산 및 신규주문 PMI**



자료: 국가통계국, WIND

**수출입 관련 PMI**



자료: 국가통계국, WIND

□ **(비제조업 PMI) 2월 비제조업 PMI는 50.4로 전월(50.2)에 비해 상승(+0.2p)**

○ **서비스업**(1월 50.3 → 2월 50.0)은 춘절 연휴 효과가 사라지며 도·소매업, 숙박업, 외식업 등을 중심으로 전월에 비해 **하락**

○ **건설업**(49.3 → 52.7)은 춘절 이후 인프라 건설을 중심으로 건설 활동이 재개되면서 전월에 비해 **큰 폭 상승**

**비제조업 PMI<sup>1)</sup>**



주: 1) 25.2월 Caixin 서비스업 PMI는 미발표  
자료: 국가통계국, WIND

**건설업 및 서비스업 PMI**



자료: 국가통계국, WIND

□ **(종합 PMI) 2월 종합 PMI\*(51.1)는 전월(50.1)에 비해 상승(+1.0p)**

\* 제조업 생산PMI와 비제조업 PMI의 가중치 합으로 산출

## 2. 시장평가 및 전망

- 2월 제조업 및 비제조업 PMI가 춘절(春節) 이후 경제활동 정상화에 따라 전월에 비해 상승하며 **경기흐름이 다소 회복**되는 양상
  - **제조업 PMI**는 춘절 이후 경제활동이 정상화된 가운데, 미국의 관세 인상 예고에 따라 해외의 중국제품 수입 수요가 늘어나고 중국기업도 수출을 서두르면서 생산, 신규주문, 신규수출주문 등이 개선(海通証券)
    - 한편 주요 원자재 구매가격지수와 공산품 출고가격지수가 상승하며 단기적으로 PPI 개선이 예상되나, 비용 상승 압력으로 중국기업들의 수익성 저하가 지속될 전망(招商宏觀)
  - **건설업 PMI**는 부동산 투자 약세에도 불구하고, 춘절 이후 인프라 건설을 중심으로 건설 활동이 재개되고 기상 여건도 개선되며 큰 폭 상승하였고,  
**서비스업 PMI**의 경우 금융 및 자본 시장 관련 서비스업은 양호한 반면, 도·소매, 숙박, 외식 등 소비 관련 업종은 춘절 연휴 효과가 사라지며 둔화(申万宏源)
- **양회(兩會) 개막(3.4~5일)**으로 중국의 재정정책을 비롯한 **구체적인 경제정책 방향**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미국의 경제통상 정책 도입이 본격화**되며 중국경기의 **불확실성이 확대**
  - 중국정부는 **확장적인 거시정책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중앙경제공작회의(24.12월)에서 설정한 중점추진 과제\*를 바탕으로 **소비 진작, 민간 부문의 안정성 제고**, AI+를 비롯한 **과학 기술 혁신** 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国盛証券 등)
    - \* ① 내수 확대, ②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 ③ 핵심분야 개혁, ④ 수준 높은 대외개방, ⑤ 핵심분야 리스크 예방 및 해결, ⑥ 도시화 및 농촌 발전 추진, ⑦ 지역발전, ⑧ 탄소감축 및 녹색성장 추진, ⑨ 민생안정 및 개선
  - 대다수 시장참가자들은 내수 진작,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을 위해 보다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장참가자들은 구체적인 경기부양책은 4월 이후 발표되는 미국 관세 정책의 영향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제시될 것이라 예상
  - 미국의 對中 추가 관세(10%) 부과(3.4일) 등 **미국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은 중국 **수출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과 동시에 **단기적으로 위안화 환율 상승**(美 달러화 대비 위안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 \* 최근 미즈호 증권(3.1일)은 미국 상무부(DoC)의 인사에 Landon Heid 차관보와 산업안전국(BIS) Jeffrey Kessler 차관이 포함된 것에 주목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새로운 AI칩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
    - \*\* 지난해 10월 이후 '미국의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위안화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으로 분석(中金公司)